

전 남

아열대 강한 다시마,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 해양수산과학원, 내일 양식기술 개발 세미나

지구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온 변화에 민감한 다시마 양식이 위협받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성장시기가 보름가량 빨라지면서 여름이면 전남지역 바다에서는 다시마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덩달아 다시마를 먹이로 주는 전복 양식장에서는 미리 다시마를 구입해 냉동시켜 사용하거나 말려 쓰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센터장 조영현·이하 연구센터)

가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다시마 종을 개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연구센터는 오는 21일 조선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신제품 다시마 양식기술 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지역 13개 연안 시·군의 수산 관계자 및 양식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중·일 다시

마 양식 현황을 파악하고 다시마 종자연구 개발을 진단하게 된다.

환미속 수산식품품종 관리센터 박사가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와 다시마 특성 조사'에 대해 발표하고 양식어업인들과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앞서 해조류 연구센터는 지난 4월 품종 개량을 통한 다시마 양식산업 활성화 및 가열전 전복 먹이 확보를 위해 중국 최대의 다시마 생산업체인 관오해양개발유한공사와 해조류 품종 개발, 양식기술 개발,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등에 관한 협

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 고수온 품종으로 개발된 다시마를 이식해 국내 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현 해조류 연구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제품 다시마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고수온에 강한 다시마를 개발해 가열전 전복 먹이 부족문제를 해소하며 다시마 양식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유기농 성공 정착 여름철 현장 교육 신안 농기센터

신안군이 친환경 유기농업과 풍년 농사 성공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한 달 동안 13개 읍·면 193개 마을 현장을 찾아 농업인 37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기술교육에는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와 읍·면 지소장 등 30여명의 전문 강사가 총 동원돼 기후변화 대응과 장마철 재해·재난관리, 친환경 유기농업 애로기술 해결, 작목별 컨설팅, 병해충 실험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군은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단계적으로 영농 현장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1단계는 지난 1~2월에 마을단위로 친환경 유기농업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이론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2단계는 4~5월 마을단위 친환경 법제소독과 새개 완우림이름 이용한 잡초제거 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김윤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자신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작목별 맞춤형 핵심기술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현장 기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lee@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 절실”

저수지 등 절반 이상 준공 30년 넘어 보수 시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노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광식 전남대 교수는 지난 17일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노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설치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영산강 사업지구는 보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방한오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는 토론발표에서 “전국적으로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농업기반 시설물이 4만1000개소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해

대비를 위한 수리시설 보수 보강 강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식품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처럼 노후된 농업기반 시설물로는

극한 기후를 감당해 내기 어렵다”며 “영산강 중심의 노후 생산기반시설의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방치, 국가 재량 부른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한농연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흙수위가 50% 수준에 이르러 원활한 용수공급과 재난 대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노후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신제품 벼 전남1·2호 내년 농가 보급

도 농기원 현장평가회

전남지역에 재배하기 적합한 신제품 벼가 내년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농가포장에서 새로운 고품질 쌀 품종 ‘전남 1호’와 ‘전남 2호’에 대한 농가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전남 1호’와 ‘전남 2호’는 지역에 맞는 고품질 쌀 품종을 만들기 위한 전남도의 첫 결실로 지난 2008년 밥맛이 좋은 ‘고시히카리’와 재배안전성이 좋은 ‘온누리 벼’를 교배한 후 약배양(꽃가루 수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생산력 검정을 통해 우수 계통으로 선발됐다.

‘전남 1호’는 밥맛이 매우 좋고 출수기가 빨라 남해안 지역 조기재배용

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조기재배에 많이 사용되는 ‘운광벼’와 ‘고시히카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시히카리’에 비해 도열병과 흰잎마름병에 강하고, 수확기 강우로 인해 나라에서 짝이 나는 수발아(穗發芽)현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남 2호’는 ‘전남 1호’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하며, 밥맛도 ‘고시히카리’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쌀연구소 신해룡 소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신육성 계통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실증포장에서 수확한 종자를 이용해 내년 조기재배 단지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담양중,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 교류

절강성 학생 20명 방문

담양중(교장 김성희)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이하 국제교류)를 실시했다.

담양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13일 중국을 방문해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이에앞서 중국 절강성 호주시

안길현에 위치한 실험초·중학교 학생 20명은 지난달 21일 담양중학교를 방문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담양군(군수 최형식)과 담양 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권)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

멋쟁이 나비의 자태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등산로에서 ‘작은멋쟁이나비’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작은멋쟁이나비’는 남극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하며, 봄부터 가을 사이에 활동한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등산로에서 ‘작은멋쟁이나비’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작은멋쟁이나비’는 남극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하며, 봄부터 가을 사이에 활동한다. <강진군 제공>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조상의 뿌리 찾아 나선 향우 2세대들

신안 도초면 출향인사, 자녀 함께 고향 방문

신안군 출신 출향 향우들이 자녀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이용해 고향을 찾아 뿌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재경 신안군 도초면향우회(회장 김규철) 회원들과 자녀 등 100여명은 최근 3일간 신안을 방문했다.

‘나의 뿌리 찾기’라는 주제로 고향을 찾은 이들은 목도메고 달리기, 워리체험, 조개잡기, 할아버지 할머니 일손돕기 등 농·어촌 체험활동을 통해 애향심과 정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서울 마포동고 초등학교에 5학년 에 재학중인 김지원(12)군은

“무더운 날씨에 고추따기 체험을 하면서 시골에서 할아버지·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농사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수희 도초면장은 “앞으로도 향우인 2~3세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내 고향 찾기’ 행사를 확대 추진하겠다”며 “각종 체험 행사를 열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자 친환경 농업 심인 도초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lee@

www.hanilexpress.co.kr

육지에서 제주까지 완도 ↔ 제주 최단시간 100분 도착!!

제주도 2박3일 초특가 특가!! 한달만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대회

(9월6일~9월15일)

일 자	교통편	시 간	행사일정	식 사
1일	선 박	15:00 16:40	광주-완도항 무료셔틀 완도 버스터미널 출발 제주2부두 도착 숙소도착 및 자유시간 숙소: 일반호텔	석 식 (자체식)
	전용버스			
2일	전용버스		호텔조식후 출발 프시케월드(유리궁전포함) 켄즈하우스(보석박물관) 해피타운(서커스공연) 중식 카멜리아힐(동백동산) 석부작박물관 올레7코스체험(돌베낭~외돌개) 서귀포유람선(선택관광) 숙소도착 및 자유시간 숙소: 일반호텔	조 식 (호텔식) 중 식 (현지식) 석 식 (자체식)

송죽레저관광

064-744-9111 / 747-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10길
23번지 2F